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다니엘 12:1-3 제2독서 히브리서 10:11-14, 18 복음 마르코 13:24-32

말씀 <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기 >

정확히 29년 전의 일입니다.
 일부 개신교에서, 1992년 10월 28일, 세상의 종말이 오고, 신도들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휴거’ 주장을 폈습니다. 그 날 9시 저녁뉴스는 일어난 휴거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휴거’란, 한자로 ‘들어올릴 휴(携)’와 들 거(擧)가 합쳐진 말입니다. 세상 종말론을 주장하는 개신교의 한 종파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들어올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는 이 ‘휴거’ 현상이 세상 종말과 심판의 징조로 나타날 사건이라고 선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넘어갔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후에 이 교리의 허황됨이 널리 알려지면서 휴거 논쟁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은 신도들은 학업도 생업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그 교회에 바쳤습니다. 휴거일로 알려진 1992년 10월 28일, 전국 8천여명의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휴거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선교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해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복음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마르 13,32).” 이 말씀은 종말의 시간이 언제인지 계산하려고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인류역사상 사람들은 대규모의 재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을 겪게 되면, ‘이것이 혹시 세상 종말의 징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기가 지나가면 ‘종말이 아닌가보다’ 안심하고, 차츰 마음이 무디어졌습니다.

각 개인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큰 사고나 중병을 앓게 되면, ‘정말 인생을 착하게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 고비를 넘기면 다시 방심하게 되고 나태해집니다. ‘지금 회개해야 한다.’ 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주 흔하게 듣는 상투적인 말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또다시 내일을 맞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충실히 사는 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16일(화)	연중 제33주간 화요일	저녁7시30분	주일헌금	\$ 1,084.00
			교 무 금	\$ 2,890.00
11월17일(수)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오전7시30분	성 물 방	\$ 107.00
			자 선 비	\$ 35.00
11월18일(목)	연중 제33주간 목요일	저녁7시30분	성 소 후원	\$ 75.00
			미사예물	\$ 1,450.00
11월19일(금)	연중 제33주간 금요일	저녁7시30분	도네이션	\$ 5,100.00
11월20일(토)	연중 제33주간 토요일	저녁7시30분	합 계	\$ 10,741.00
11월21일(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오전9시(학생) 오전11시(교중)	미사참례자	학생/아동: 22명 성인: 136명
교무금 봉헌자	오영자.구준모.김길록.정영규(11-12월)허호영(1-10월)정두용(5-8월)김계숙(10월)이대원.박원상 성영진.김상돈.남필레.안강순.지복원.이승렬(11월)			

◎신앙생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21:5)

가톨릭교리상식

◎성물 축복이 궁금합니다. 묵주, 성상, 십자가 등을 사면 신부님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콘도 축복을 받아야 하나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이 달라서, 어떤 것은 축복을 안 받기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수류탄에 축복을 받아야 할지 말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당연히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성화나 미사포는 기도할 때 직접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축복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헛갈려서 질문하신 것이겠지요. 결론만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신심을 북돋아 주는 물건들'은 전부 축복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자들께서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신심의 표시로 품에 지니고 다니시는 물건이 있을 수 있고, 묵주처럼 손에 붙잡고 기도를 위하여 쓰시는 성물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 집에 모셔놓은 성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물건이 전부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 축복예식서는 이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심 행위는 어떤 것이든 이에 관한 **교회의 법과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를 신자들의 신심을 북돋아 주는 관습으로 인정한다. 전례 기도나 신심 행위를 위하여 묵주나 이와 같은 다른 물건을 사용하며, 신자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축복받는 것이 좋다." (축복예식서 1137항) 따라서, 기도할 때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시는 작은 성화들, 미사포, 스키편 등 신심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기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건들, 가령 무기 등은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성체를 여러번 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을 더 많이 모시면, 더 많은 은총을 받지는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체를 통한 은총은 성체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체축성에 사용했던 제병이 더 컸다고 은총을 더 받는 것도 아니며, 여러 성체를 한꺼번에 모셨다고 받는 은총이 더 크지도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교우들에게 영성체를 권장하면서도, 미신적인 믿음으로 영성체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법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영성체의 최대 횟수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최대 2회까지**입니다(교회법 917조 참조).

물론, 임종을 앞둔 분들은 다시 영성체하셔서 힘을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교회법 921조 참조).

무작정 영성체 횟수만 늘어난다고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해당 교회법 조문은 알려줍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김정필 .라파엘 /윤태욱 .안나 /원정은 .카타리나 백정심 .막달레나 /기은희 .마리아 /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 /추소연 .세실리아 /엄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 /김초지 .마리아 /이규청 .제노비아 엄모니카 /배미성 .오틸리아 /박모란 .글라라 고공자 .벨라렛다 /신용경 .그레고리오 /이상일 .마리아 남필레 .마리아 /김화진 .요안나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여길선요안나 영혼	김근수요한가족	생	조유원요셉 영육건강	조유희밀지다
연	전기레베레나 영혼	조영진안드레아	생	조유원요셉 영육건강	이선자안나
연	오영애바울라 영혼	오토마스자녀들	생	김정필라파엘 빠른 회복	이영숙데레사
연	이돈수알폰소 영혼	이주엽발렌티노	생	김정필라파엘 빠른 회복	벨리나
연	서정선엘리사벳 영혼	안윤석	생	김일녀 .비리지따 영육건강	김영숙마리아
연	조상님들 영혼	이종만모세가정			
연	김영미마리아 .추순금안젤라 영혼	진엘리사			
연	정홍용 .바로로 영혼	정미정루시아	연	함영순 .마리아 영혼	최정신데레사
연	양향옥 .요셉, 주영만, 김현순 영혼	윤재경 .알베르토	연	한승욱 .요셉, 정용모 .마리아 영혼	한삼토마스
연	김준선 .베르나드 영혼	김영숙마리아	연	이용하 .스테파노, 문인자 .모니카 영혼	한은실도미니카

가장 ◎ 위령성월 ◎
 당신은 홀로 모든 불의와 죽음을 체험하시고도
 당신 사랑한다는 한 마디 말로 모두 용서해주시기에
 죽은 이들이 당신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죽은 이와 우리, 당신의 약속으로 서로 위로하게 하소서. 마종기 노렌조 시인 .의사

●공동체 소식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목시21:5)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1인 1신심단체, +1봉사단체 가입하기>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1. 사목회장 추천을 위한 9일기도 (목주기도)

일 시: 16일(화) 부터 매 미사 30분전
지 향: 사목회장 추천

2. 리노 공소 미사

일 시: 14일(일)성당에서 오후2시 출발
참여단체: 하상바오로, 전교부
공소미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 19일(금)저녁8시.성당
저녁7시부터 찬미와 목주기도가 있으며
미사후에는 성시간과 안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서북미 한인 꼬미시움 회합

일시: 21일(일) 교중미사후.친교실
대상: 서북미 6개 구리아 간부 및 우리 본당
각 뽀레시디움 4간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교구2차헌금

일시: 21일(일)모든미사
목적: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6. 사목회 임시총회

일시: 28일(일) 교중미사직후
안건: 2022년도 사목회장 추천
참석: 사목임원, 구역장, 제단체장
참석자들께서는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참석 바랍니다.

7. 여성부에서 알립니다

김치통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8. 감사합니다 (도네이션:방석/카펫교체)

박춘자마리아(\$100), 송돈희요셉(\$500), 윤영자마리아(\$500), 임정남실비아(\$1,000), 익명(\$1,000)
장석자요한보스코(\$1,000), 우순이알레나(\$500)
익명(\$2,000)

<<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학생미사 (매주일 오전9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학생미사때 좌석을 구분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학생.학부모(독서대쪽)/일반성인(미사해설대쪽)

● 병자성사 및 봉성체 (신부님께 개별 신청)

● 본당에서 발행한 Check는 빠른 시일 안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내에서의 소규모 단체모임 허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본당 제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단체모임(10명 내외)에
한해서 본당 사용을 허락합니다.
본당 신부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비드19 관련, 본당 방역 지침 (요약)

- ①성가책과 기도책은 모두 개인이 지참.사용
하시기 바라며, 미사후에는 개인소지품은
덱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②악수/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은 삼가하시고,
코비드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 ③미사 참석하는 모든 신자들의 성가제창 및
기도문 봉독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합니다
- ④그 외 사항은 교구지침을 따릅니다.

화답송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전례봉사

연중 제3주일(11월14일)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21일)

대림 제1주일(11월28일)

대림 제2주일(12월5일)

미사해설

정미정.루시아

이순자.요안나

최금주.요안나

김은영.폴리나

복 사

송돈희.요셉

장현철.엘리아

최진호.다니엘

최준우.루카

헌금위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 21:5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 (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 (바오로)
916-361-2020 (Bradshaw)
916-361-0433 (Elk Grove)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 (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 (올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 (스테파노)
김옥기 (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서은미 부동산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 (안나) 916-600-1936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 #P)
최병엽 (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 (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 (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Print N Signs

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

장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 (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 (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

성당
FM주파수
107.9
(야외미사)

성당제출용
CHECK 발행할 때
Payee to:
St.J.H.C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

입금은행: Wells Fargo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